

순천만·태백산맥·한양옛길·동천 구간 등 4개 테마

문화·역사 ‘남도 삼백리길’ 열린다

순천시, 사업비 88억 들여 2013년 완공기로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남도 삼백리길'이 조성된다. 순천시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순천만 구간', '태백산맥 구간', '한양옛길 구간', '동천구간'의 4개 테마로 남도 삼백리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도 삼백리길은 순천만을 출발, 해안길을 따라 화포 해돋이를 보고 낙안읍성을 지나는 '태백산맥 구간'을 따라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에서 1박을 하게 된다. 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유생들이 넘어 다녔던 미사치 '한양옛길 구간'을 따라 청소골에서 1박을 한 후 순천 도심을 가로질러 와에서 일몰을 보고 순천만을 둘러보는 총연장 120km의 코스다. 이를 위해 주요 생태탐방자원을 걸어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옛길이 복원되고 등산로가 정비된다. 순천시는 자전거 길, 뱃길, 교량형 생태도로 등 생태탐방로와 탐방로 사이를 환경친화적인

통로로 연결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스토리텔링화 했으며 각종 안내표지판과 이어주는 연결통로, 전망대, 체험장, 편의시설 등도 설치된다. ▲순천만 구간(별량 유두~화포~용산전망대~해룡 와온길 25km) = 국가 생태탐방로 260개 구간 중 해안길 구간에 포함돼 있다. 순천만 해안선을 따라 갯벌과 칠새 등 다양한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용두~마산 구간은 해안을 따라 이동통로가 개설되며 자전거길과 등산 전망대에서 와온까지 연결로도 만들어진다. ▲태백산맥 구간(유두~동화사~제석산~낙안읍성~금전산~오금재~조계산~절치재 34.7km) = 탐방로를 따라 소설 태백산맥 문화기행이 가능토록 조성되며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 자원이 하나로 연결된다. 구기~낙안읍성간 4km에 자전거길이 조성되며 오금재~고동산~절치재, 동화사~제석산~구기 구간 등산로가 개설된다. ▲한양옛길 구간(절치재~오성산~노고치~문유산~송치~미사치~계축산~정혜사 37.1km) = 생태통로를 조성해 산악구간인 재를 하나로 연결한다. 특히 한양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였던 미사치 구간은 옛길로 복원된다. ▲동천 구간(청소골~강침~봉화산~동천~용산~와온 23.2km) =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들도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도심과 산, 하천, 바다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한다. 순천만에서 동천을 잇는 뱃길이 복원되고 청소골을 잇는 하천형 자전거길이 만들어진다. 도심공원인 죽도봉공원과 장대공원, 동천을 연결하는 통로도 조성된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고흥 증산 일몰 전망대로 세밀 해님이 축제 오세요”

고흥군이 오는 31일 남양면 증산 일몰 전망대에서 해님이 축제를 개최한다. 증산 해님이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증산 일몰전망대 준공 기념식을 비롯해 송년 메시지 낭독, 퓨전 전자현악 공연, 소원성취 풍선 및

우주풍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축제 참가자들에게는 유자차와 떡국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증산 앞바다에서 채취한 신선한 고막과 굴 등 해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된다. /고흥=추각중기자 gjju@

순천-광양시, 지역갈등 깊어지나

광양시의 설립 인가에 순천상의 '법적 대응' 밝혀 순천대 광양캠퍼스 논란 이어 동부권 갈등 비화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 논란에 이어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 공시 인가로 순천시와 광양시간 갈등의 폭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5일 전남도가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을 공식 인가함에 따라 현재 순천·광양상공회의소의 '대주주'인 광양지역 기업들이 대거 광양으로 옮길 경우 '순천상의'(가칭)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순천·광양상의 회원 400여 명 중 50% 가량인 203명이 광양지역 상공인이고, 상의 연 회비 8억 6천여만 원의 70%가량인 6억 원 가량을 광양 상공인이 납부하고 있다. 반면 '순천상의'는 광양에 비해 산

업여건이 열악한 순천과 보성, 구례 지역 상공인들로 조직을 꾸려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순천·광양상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하나의 관할구역 내에 두 개의 상공회의소를 중복해 설립 인가한 것은 상공회의소 제도와 상공회의소법에 어긋난다"며 "광양상의의 효력 정지처분 신청과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수 순천·광양상의회장은 "그 동안 광양만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컨데이너부두의 개발과 철강 산업의 발전, 순천과 광양지역경제인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왔다"며 "상공회의소 중

복설립 인가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하는 등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천시도 17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 등과 맞물려 자치단체 간 화합과 협력에 광역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시태청으로 '법적 대응'이라고 광양상의 설립 인가를 비판했다. 순천시는 "광양상의 독자 설립으로 순천과 광양 간의 반목과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광양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순천·광양 통합 상의 운영은 절대대로 필요하며 광양상의의 개입은 순천·광양 통합 상의에 대해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전시할 유물이 없어...” 여수 거북선 박물관 건립 백지화

임진왜란 당시 전라 좌수영 본영이 위치했던 여수시의 거북선 박물관 건립 계획이 백지화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18일 “오는 2011년 시정도에 거북선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결과,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거북선 박물관을 건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어 “거북선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국 인근에 임진왜란 당시 배를 건조했던 국가지정문화재인 선소가 자리 잡고 있어 거북선 박물관이 지어질때 선소의 문화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짓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낙안배 명품화사업 착수

순천 '낙안 배'를 전국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명품화 사업이 펼쳐진다.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지부장 정순균)는 1촌 1명품 개발 추진사업 대상지역으로 낙안 이곡마을을 선정, 최근 낙안배 명품화를 위한 사업자금 2천500만원을 지원했다. 낙안배 명품화 사업에는 배 가공상품인 배즙의 포장재 개선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해 총 6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순균 지부장은 “농협의 낙안배 명품화 지원사업은 배 재배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마을 특성을 살린 특산물을 발굴, 특정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구례 지리산온천~성삼재 케이블카 설치 본격화

각계 대표 40명 추진위 발족

구례군 지리산온천에서 성삼재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구례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형실에서 서기동 군수와 박민선 군의회 의장 등 군과 군의회, 관계기관, 학계, 주민 대표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케

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리산 탐방기회를 관광객에게 사계절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리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성삼재 도로의 교통사고와 대기오염, 로드킬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리산 탐방객을 효과적으

로 통제하려면 케이블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군민의 역할을 겸직된 위원회를 발족했으니 군민속원사업에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는 생태계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구례=김종호기자 dhkim@

광양시의회, 순천대 광양캠퍼스 지원 예산 의결

광양시의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순천대 광양캠퍼스 내년도 지원 예산 50여만원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광양시의회는 내년 2월28일까지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

는 조건으로 광양시의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광양시는 올해 광양캠퍼스 지원금으로 50여 만원을 집행했으며, 내년도 50여 만원을 포함해 앞으로 550여 만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대학교 캠퍼스 광양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광양시가 순천대에 광양캠퍼스 부지 매입비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Table with 4 columns: Item No., Applicant, Purpose, and Details. Title: 공시 최고 (Public Notice of Highest Priority). Content: List of land parcels for public notice, including location, area, and applicant information.